여수시의회 유스호스텔 건립안 또 부결

"수익성 없어…300명 이상 수용 규모 키워야"

여수시 "경제성 문제 없어" 원안 추진 강행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골프장의 공익사업(유스호스텔 건립) 이행이 시와 의회가 사업 내용을 놓고 팽팽히 맞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는 시의회 제124회 임시회에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소관 상임위가 경제성 등을 문제 삼아 부결시켰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내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37실(220명) 규모로 내년 6월까지 100억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최소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해야 경제성이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고 경제성이 의문시 된다면 국제규모(50m)의 수영장 등의 효용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열린 제120회 정례회와 제122회 임시회에서도 각각 같은 이유로 부결 또는 유보했다.

최대식 의원은 "100억 상당의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자 측이 1차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찬성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 사업주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합한 사업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청소년 동계훈련지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이 가장 적합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원안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근 순천, 강진, 해남 등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은 우리보다 작지만 민간위탁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실정으로 경제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오는 4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돌산읍 진모 지구에 지난 해말 축구장 시설이 건립됐지만 숙박 등 부대시설이 미흡해 동계 훈련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현실을 감안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시티파크리조트 관계자는 "시와 의회가 사업 내용을 정해주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티파크리조트는 지난 2004년 둔덕동 수문산 일원에 18홀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지난해 4월 공익사업 기본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으나 사업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범 라운딩에 들어간 시티파크리조트는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익사업 이행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준공과 제2종 종합 휴양업 등록' 절차를 최종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보성 제암산 산불 사전 예방교육

보성군은 최근 웅치면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과 감시원 69명을 대상으로 산불진화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불진화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함께 산불 진화기술, 진화선 구축 요령 등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성군 제공〉

여수문수초 전국 첫 '기후보호 시범학교'

에너지 절약액 만큼 보상·지원 혜택

여수시 문수동의 원앙아파트가 지난 2008년 기후보호 시범 아파트로 지정 운영된 데 이어 여수 문수초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호 시범학교'로 지정·운영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여수 문수초등학교(교장 이영형)를 '기후보호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시는 기후보호 강사를 파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이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자투리 땅 나무심기 운동으로 교내 흡수원 확충 ▲아나바다 운동 실천으로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포인제 등의 운영으로 전기, 수도,가스 사용 절약을 생활화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지원과 보상 등의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원앙아파트를 시범 아파트로 지정 운영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 초등학교로 영역을 넓히게 됐다"며 "올 한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와 문수초등학교는 개학에 앞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영형 교장은 "여수가 환경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범학교로 신청했다"며 "시범학교 운영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에 도움을 받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만 웹툰 황금짱순이 조회도 '짱'

네티즌 100만 돌파…3월이후 단행본 출간

순천만을 배경으로 제작된 웹툰(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제작사 미디어 인에 따르면 영화감독 출신 장현필(45)씨가 직접 대본을 쓴 웹툰 '황금짱순이'가 조회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황금짱순이'는 겨울잠을 자는 짱뚱어 '짱순이'와 겨울에만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두룩이'의 만남을 소재로 순천만의 사계와 연안습지의 가치, 환경보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생태만화이다.

웹툰 '황금짱순이'는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우수문화콘텐츠 사업에 당선된 작품으로 네이버 '오늘의 웹툰' 코너에 지난 1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2회씩 연재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모두 20회가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장현필 작가는 "자연훼손을 극복하고 오늘의 순천만을 지켜낸 지역시민운동의 선구적인 활동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자 만화를 제작하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들이 난개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설계작업 9월 마무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설계작업이 오는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설계자로 선정된 가원조경 측의 박람회장에 대한 설계작업이 지난 1월 12일 시작돼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원조경 설계팀은 순천에 상주하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9월 8일로 예정된 설계공정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작업도 병행하면서 현재 정원박람회장 공간 배치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시는 이같은 설계 공정에 맞춰 9월 이전에 정원박람회장 토사반입 및 수목 가식장 조성 작업을 마치는 한편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원박람회장 부지정리와 수목식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박람회장 부지 매입도 현재 60%의 매입률을 보여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박람회 준비가 전반적으로 순조롭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곡성 삼기면 유치기업 2곳 연내 가동

코스·운석식품 200억 등 투자 적지로 떠올라

곡성군 삼기면에 기업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곡성군 삼기면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주)코스(대표 이강염), (주)운석식품(대표 이승우)이 올해 본격적인 공장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곡성 삼기면은 광주에서 30여분 거리인 교통 요충지인데다 땅값도 저렴해 기업들의 투자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PVC문틀 생산업체인 (주)코스는 삼기면 경악리 부지 2만9천134㎡를 매입, 연건평 1만1천94㎡ 규모의 공장을 6월 말까지 준공해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코스는 경기도 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전남도와 투자협약 체결후 당초 10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주)운석식품은 사업비 35억을 투자해 삼기면에 천연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천연 식물성 바이오 신소재를 생산한다.

군에서 공장 창업승인을 받아 오는 12월중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삼기면 관계자는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70여명의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삼기면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전남도로부터 투자유치 우수 면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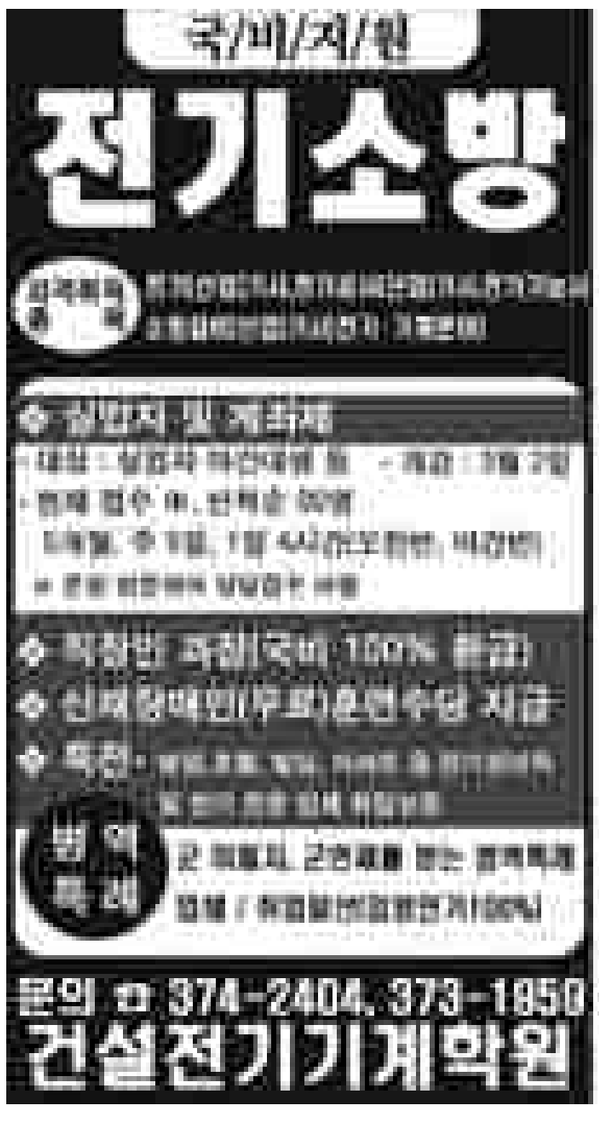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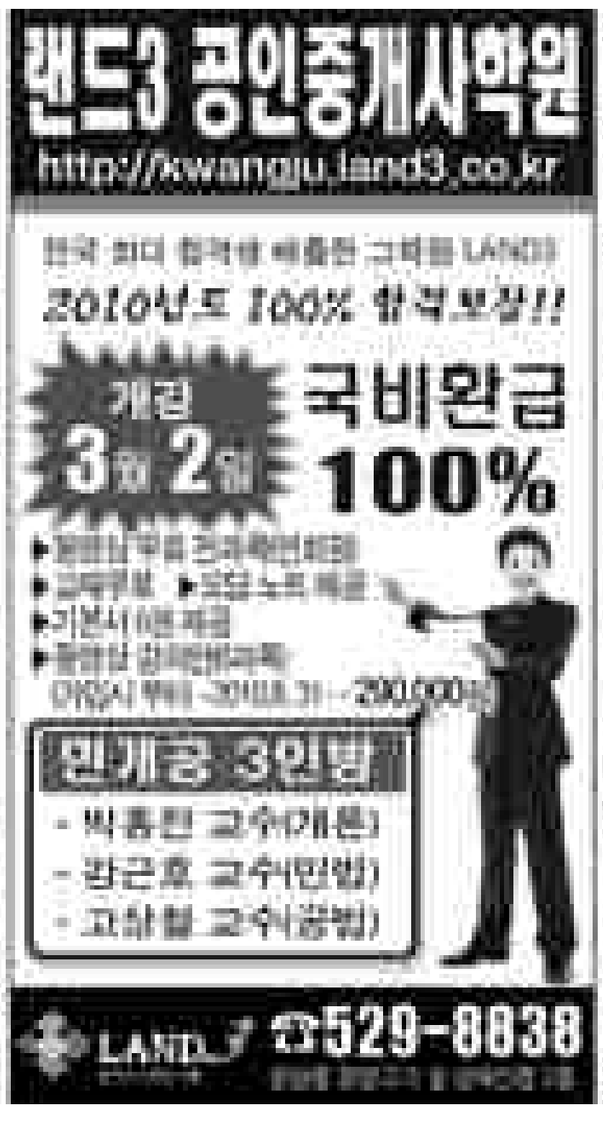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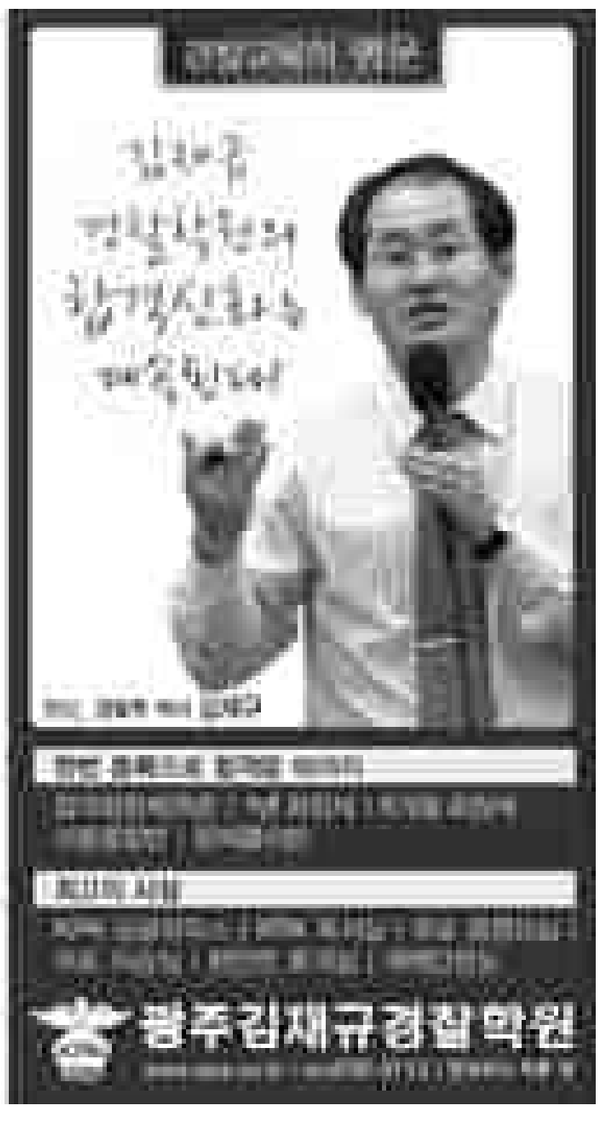
오동도 디지털 체험관 문연다

여수시 6월부터 'u-생태관광 서비스'

여수 오동도에 동·식물, 해양생물 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구축됐다.

여수시는 최근 '체험형 u-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연간 1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동도에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오동도 생태정보' 동백꽃 거북선 등 잡힐 듯 실감나게 만나는 3D 홀로그램, 디지털 입체영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4D라이더'가 갖춰져 있다. 생태투어 단말기 및 4D라이더를 이용하려면 인터넷(www.o-dongdo.go.kr) 예약 및 생태체험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